

게임이론에 근거한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해결 전략차이 연구*

김태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상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 문 요 약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문제가 농촌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미치는 후유증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도 깊은 연구가 부족하고, 농촌원주민보다는 귀농·귀촌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요인을 두 주체 간 입장에서 도출하고,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갈등해결 전략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갈등요인을 도출하고,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전략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xelrod(2009)가 개략한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에서 사용되었던 대응전략 중에서 5가지 전략을 선택해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남지역 12곳을 지정하여 직접 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갈등해결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 갈등해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원주민 갈등유발은 낮았다. 또한 각 갈등원인 중에서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주민'에 대한 갈등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은 원주민 갈등유발원인보다 갈등 수준이 높았다. 각 내용 중에서는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강한 갈등원인이었다. 원주민 갈등유발원인에 대해서는 갈등해결전략 중 울씨(All C, 웬만하면 협조한다)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에서 다운닝(Downing, 처음에는 협조하지 않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티포탯(tit for tat, 먼저 협조하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 전략, 울씨(all c) 전략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내용별로 살펴보면 동일한 유형의 전략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원인에 따라 전략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민의 갈등유발원인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반면, 귀농·귀촌인의 갈등유발원인은 그 원인의 성격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을 달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인을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두 주체 간 모두의 입장에서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 가는지 해결방법 차이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와 결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인 도출을 통해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해결전략차이에 대한 선택을 알아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성공적인 농촌정착은 이해 관계자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신사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력을 이끌어 내어 상호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상호협력이 배반보다 이익이 더 많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비결은 상대방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거나 이익을 위해 배척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갈등, 농촌원주민, 귀농귀촌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 티포탯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감소, 고용불안, 정부의 귀농지원 정책이 맞물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환경변화는

물론 복잡한 도시인구 분산 효과와 함께 농촌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박대식·김경인, 2017; 최윤지 외, 2012). 특히 6차 산업분야는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귀농귀촌자의 역할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김성규 외, 2016; 이지흠·하규수, 2017). 한 도시에서도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농산업을 나타나고(이성일 외, 2016), 농촌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도시인의 귀농으로 농사뿐 아니라 다양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석사, 1754bigkyun@naver.com

*** 교신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spark@gntech.ac.kr

· 투고일: 2019-01-09 · 수정일: 2019-02-17 · 수정일: 2019-03-18 · 게재확정일: 2019-04-29

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분위기는 활기차며, 폐쇄적인 농촌마을 분위기가 보다 유연하며 열린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박지연 외, 2015). 또한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촌에서 친환경 농업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농업인의 ITC활용능력이 늘어나서 스마트 팜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보다 용이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농촌 인구 증가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23.9%가 원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은경, 2008).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원인은 원주민의 선입견과 텃세, 재산권 침해, 농촌을 잘 알지 못하여 생기는 갈등 등이 있다(박시현·최용욱, 2014; 유영민 외, 2017).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의 연구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갈등발생 이유는 농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귀농·귀촌인, 마을 일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권침해, 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을 고집하는 귀농·귀촌인의 태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갈등을 기반으로 두 주체 간 입장에서 갈등요인을 도출하고 각각의 갈등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문제와 그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인을 도출하여 게임이론으로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해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해결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귀농귀촌 유형 및 현황

일반적으로 귀농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촌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로부터 농촌에 신규 전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농업 종사와는 관계없이 농촌으로 삶의 장소를 옮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귀촌으로 정의한다(김정섭, 2009). 더 나아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생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귀촌은 귀농 범주에 포함되며(김상균, 2012). 서규선·변재면(2000)은 귀농인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농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기서·정일훈(2012)은 농업의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생활을 중단하고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을 광의의 귀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문호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귀농과 협의의 귀촌을 농업의 종사 여부로 구분하되, 광의의 귀촌을 귀농·귀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농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청년과 퇴직자의 증가로 귀농·귀촌인구도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귀농을 해서 농촌으로 들어왔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을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윤순덕 외, 2017). 이와 같이 정착을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현상 가운데는 원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5~10%의 귀농·귀촌인이 역 귀농·귀촌한다(마상진 외, 2016).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과 성공사례만 홍보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문제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윤순덕 외, 2017). 농촌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금문제, 영농기술문제, 농지 구입의 문제, 생활여건의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이다(박대식·김경민, 2017; 마상진 외, 2016; 유영민 외, 2017).

서규선·변재면(2000) 연구와 박공주 외(2006) 연구에 의하면, 고향인 농촌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학업이나 취직 등을 이유로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존 농사를 계속하는 U-Turn 유형, 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떠났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하는 J-Turn 유형, 도시에서 태어나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농촌출신이 아닌 경우에 귀농·귀촌하는 I-Turn 유형이 있다(<표 1> 참조).

<표 1> 2017년 귀농·귀촌 형태

구분	귀농	귀촌
U-Turn	42.0%	28.0%
J-Turn	26.4%	32.0%
I-Turn	31.6%	40.0%
합계	100.0%	100.0%

출처: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연구자 재구성

<표 2>의 귀농가구현황을 살펴보면 39세 이하 귀농인수 1,340명으로 10.8%를 차지하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4,788명으로 24.4%에 달한다. 비교적 젊은층의 귀농자 비중이 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황은 노령층 중심의 농촌 원주민 인구 구성과는 상이한 인구구조를 보이기에,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세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2017년 귀농가구현황

단위: 명, 괄호: %

항목	39세 이하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계
귀농 가구원 수	4,788 (24.4)	2,988 (15.2)	6,402 (32.5)	4,408 (22.4)	1,084 (5.5)	19,670 (100.0)
귀농인 수	1,340 (10.8)	2,273 (18.3)	4,596 (37.1)	3,465 (27.9)	729 (5.9)	12,403 (100.0)

출처: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연구자 재구성

2.2 귀농·귀촌 갈등

갈등(葛藤)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의미대로 칩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엉켜서 복잡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모양으로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김용근, 2011). 이러한 갈등은 집단이나 개인 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우리 생활 속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갈등의 특성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갈등의 특성을 귀농과 귀촌에서의 갈등으로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천태윤(2001)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감각적, 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갈등으로 보았다. 귀농·귀촌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원주민과의 갈등은 도시와 농촌의 문화차이와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표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거나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내재되어있던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박대식·김경인, 2017; 유영민 외, 2017). 유종해·이덕로(2015)의 연구에 의하면 갈등은 둘 이상의 행위주체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현상으로 보았다. 갈등은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천태윤(2001)은 갈등은 당사자 간 의사소통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둘 이상의 주체 간에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상호의존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미묘한 심리적 긴장에서부터 명백한 폭력행위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박대식·김경인, 2017; 유종해·이덕로, 2015; 천태윤, 2001). 둘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갈등은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완벽한 갈등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갈등은 사소한 이유로도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유영민 외, 2017).

귀농·귀촌 정착과정에 있는 대상으로 귀농·귀촌자가 생각하고 있는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철규 외(2011)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협치 기구의 필요성과 귀농·귀촌에 앞서 농촌사회를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경험의 공유를 언급하였다. 최윤지 외(2012)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체계적인 계획과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마을 주민과의 좋은 관계유지와 도시생활에서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수호(2013)는 공동체의식이 강한 농촌의 특성상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소통 교육이 필요하며, 두 주체 간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마상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선입견과 텃세, 재산권문제,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마을 모임 및 운영에 대한 방

식, 영농방식에 의한 차이에 따른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착에 필요한 자금과 농촌에서 안정적 소득 마련, 농촌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가치와 신념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나 지지체의 지원, 농촌에 대한 사전교육, 주변사람들의 지지와 도움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갈등은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Pondy, 1967). 갈등이 갖는 순기능으로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발견하고 인간 생활이 편리해지고 여가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에서 갈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사회갈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반대로 역기능으로는 갈등의 세력이 너무 강화되면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목표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갈등의 역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갈등으로 인한 순기능 측면은 등한시하였다(박대식·김경인, 2017). 이제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대화를 통하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상생할 수 방안을 찾는 등 갈등의 역기능을 통해서 갈등요인을 인식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과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닌 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도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유영민 외, 2017).

2.3 게임이론에 근거한 갈등해결연구

2.3.1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의 유명한 사례 중에 두 사람이 참가하는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가 있다. 참가자는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력과 배신’이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 게임의 특징은 상대방이 협력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배반이 협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데 딜레마는 두 사람 모두 배반하면 모두 협력을 할 때보다 나쁜 결과를 얻는데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상호협력하면 양쪽 모두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에 의해 자신에게 유리한 배반을 선택하여 결국 상호배반이 일어나는 단순하고도 흥미로운 상황을 모형화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각 용의자는 자백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백을 하면 묵비권을 행사한 용의자보다 형량을 낮게 해 주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풀어 준다. 만약 <표 3>와 같은 상황일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의자1과 용의자2 둘 중에 자백한 용의자는 풀려나고 자백하지 않은 용의자는 20년 형을 받게 된다. 둘째, 용의자1과 용의자2 둘 모두 자백하면 5년형의 처벌을 같이 받게 된다. 셋째, 두 용의자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여 자백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결과인 1년 형을 받을 수 있다(Davis, 1995).

<표 3> 죄수의 딜레마

		용의자 2	
		<배반> 자백한다	<협력> 자백하지 않는다
용의자 1	<배반> 자백한다	(5년, 5년)	(20년, 석방)
	<협력> 자백하지 않는다	(석방, 20년)	(1년, 1년)

출처: Davis, 1995, 재인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의자2가 협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의자1은 배반을 선택하는 게 낫다. 용의자2가 배반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용의자1은 배반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상대방이 협력과 배반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관계없이 배반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문제는 용의자2도 똑같은 논리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배반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두 용의자 모두 상대방을 믿지 못하여 배반하게 되고, 둘 다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딜레마이다.

이와 같이 죄수의 딜레마는 상호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반을 하고 상호협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상황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 간의 경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Axelrod, 2009; Davis, 1995; Arce, 2010). 따라서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일치한다 할 수 있다.

2.3.2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성공 전략

액셀로드 (R. Axelrod)는 상대방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상대방과 협력 하고, 언제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할까?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협력 행동이 나타날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컴퓨터 체스대회와 비슷한 ‘죄수의 딜레마 컴퓨터대회’를 개최했다. 그는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출품해 달라고 초청하였다. 출품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알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매 게임마다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비 협력할 것인지를 선택 할 수 있게 했다.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수학 등 여러 분야의 게임이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출품하였고, 제출된 열네 개의 프로그램들 간에 상호 게임을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승자는 제출된 것 중 티포탯 (tit for tat)이라는 가장 단순한 전략이 우승을 차지했다(Axelrod, 2009).

티포탯이란 첫 게임에서 협력으로 시작하고, 상대방이 협력하면 끝까지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자신도 배신하여 상대가 이전 게임에서 취한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맞대응 전략을 가리킨다. 한 전략의 효율성은 자체의 특징뿐 아니라 상호작용해야 하는 다른 전략들의 속성에도 좌우되므로 한

번의 대회에서 얻은 결과는 신빙성이 적어 액셀로드는 2차 대회를 개최했다. 2차 대회는 1차 대회에 참가했던 게임이론가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경제학, 심리학, 수학, 사회학, 정치학, 진화생물학 교수 등 6개 국가에서 총 62개의 프로그램이 참가했다. 이들은 1차 대회에서 나타난 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훨씬 더 정교한 전략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많은 참가자들은 1차 대회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각기 다른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대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승자는 또 티포탯이었다. 누구도 티포탯보다 더 나은 전략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참가자들은 티포탯의 성공요인은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고 상대방이 배신 후 다시 협력하면 협력하는 신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티포탯을 출전시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고 티포탯을 출전시킨 사람이 결국 우승한 것이다. 이는 티포탯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Axelrod, 2009). 티포탯 전략의 성공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질투하지 마라. 티포탯이 우승한 것은 상대방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으로 부터 협력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협력적인 한 먼저 배신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둘째, 먼저 배반하지마라. 이기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이득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고 밀리게 된다. 따라서 이기적인 전략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상호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필요한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여 결국 실패하고 만다. 먼저 배신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불신을 주게 되고 다음에 협력하더라도 의심이라는 위험요소를 주게 된다. 셋째,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갚아라. 먼저 협력하고 상대방이 협력하면 끝까지 협력하고 상대방의 배반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여 보복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반하면 배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배반을 하지 않게 한다. 상대방이 배반행동을 자제하고 협력행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행동에 대해 무조건용서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재구축한다. 넷째,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상대방이 자기를 배신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먼저 배신하지마라. 상대방이 협력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지 마라. 상대방은 당신이 협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는지 협력을 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에 따라 그대로 되돌아오게 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략을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Axelrod, 2009).

반복적 딜레마 상황에서 특징은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구사하고 영악하게 굴었지만 결국은 배신하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는 전략보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배신하지 않는 신사적인 전략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신하며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전략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죄수의 딜레마는 한번으로 끝나는 문제일 경우에는 배반으로 얻는 이익의 유혹이 높아 계속

배반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배반에 대한 보복이 돌아오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텃포탯은 상대방을 패배시킴으로써 성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협력이 상호배반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가장 좋은 결과를 올리는 비결은 상대방을 배신하고, 이용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연속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해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욕심에 의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만, 호혜주의에 의한 상호협력을 하면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요인을 도출하고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갈등해결전략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3.1 측정변수선정

3.1.1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요인 변수

본 연구는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문제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기존선행연구자료 내용을 토대로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갈등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성일 외(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원주민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를, 귀농·귀촌인 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마을 운영방식과 마을 발전방향에 따른 시각 차이, 집이나 토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농업방식의 차이, 농촌 문화와 농촌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 마을 행사나 모임 참여문제 등을 갈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차광주(2010)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원주민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원주민들의 텃세와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꼽았으며, 귀농·귀촌인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도로사용에 대한 문제를 갈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김철규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원주민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원주민의 차가운 행동, 마을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끼리 단합하는 행위, 이익이 되는 부분은 귀농·귀촌인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행위,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주민 등을 도출하였다. 귀농·귀촌인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는 개인주의 행동, 마을 주민과 협력 부족, 지역사회에 공헌 노력 미비 등을 도출하였다.

오수호(2013)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원주민의 갈등요인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농촌문화, 의사소통 부족과 무관심, 유언비어, 인신공격, 귀농·귀촌인을 경쟁자로 보는 태도 등을 도출하였고, 귀농·귀촌인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마을 발전방향 및 운영방식차이, 각종 지원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따른 소외

감, 도시와 농촌문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박대식(2016)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원주민이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들어오면서 받은 지원 자금, 귀농해서도 원주민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소외감, 이유 없이 외지인에 대한 주민들의 텃세,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 등에서 오는 오해나 편견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귀농·귀촌인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는 농촌의 공동체생활과 차이가 있는 개인주의적 생활태도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는 다양한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환경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문헌을 통해 살펴본 갈등 요인을 <표 4>와 같이 정리하면 갈등의 주체에 따라 농촌원주민이 유발하는 갈등 요인을 총 10개, 귀농·귀촌인 이 유발하는 갈등 요인은 총 13개가 도출했다.

<표 4>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갈등요인

분류	갈등요인
농촌 원주민 유발 갈등 요인	1)원주민의 텃세
	2)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3)회의 방법을 무시하는 태도
	4)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 내려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태도
	5)농촌과 다른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
	6)귀농·귀촌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태도
	7)소통하기를 꺼려하는 태도
	8)귀농·귀촌인의 일에 간섭하는 태도
	9)약속시간을 잘 어기는 태도
	10)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
귀농·귀촌인 유발 갈등 요인	11)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
	12)농촌문화를 잘 모르는 태도
	13)농촌 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태도
	14)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15)마을의 관습이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17)농촌 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18)주거단지 조성으로 농촌 원주민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생활 태도
	19)무분별한 개발 태도
	20)마을 관습보다는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21)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
	22)귀농·귀촌인 끼리만 어울리는 태도
	23)영농방식에 따른 충돌

3.1.2 게임이론에 근거한 갈등해결 전략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협력자의 본심을 상대방이 신뢰하고 협력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려는지 관찰하고 분석하여 의사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활용한 ‘죄수의 딜레마 컴퓨터대회’에서 사용한 5가지 전략 중에서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5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웬만하면 협조하지 않고 무조건 배반하는 올디 (all d) 전략이다. 둘째, 협조할지 안할지는 각자 알아서 내키는 대로하는 랜덤 (random) 전략이다. 셋째, 먼저 협조하고 상대방이 협조

하면 협조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 티포택 (tit for tat) 전략이다. 넷째, 먼저 협조하지 않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 다우닝 (downing) 전략이다. 다섯째, 무조건 협조하는 올씨 (all c) 전략이다(Axelrod, 2009).

본 연구는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에 따른 요인 도출과 해결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xelrod(2009)가 개최한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에서 사용되었던 전략 중에서 <표 5>와 같이 5가지를 선택하여 농촌원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응전략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표 5> 갈등해결 전략

전략	설명
올디 (all d)	웬만하면 협조하지 않고 무조건 배반한다.
랜덤 (random)	협조할지 안할지는 각자 알아서 내키는 대로 한다.
티포택 (tit for tat)	먼저 협조하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
다우닝 (downing)	먼저 협조하지 않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
올씨 (all c)	무조건 협조한다.

3.2 조사 및 분석

3.2.1 설문항목 구성

본 연구는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요인과 갈등에 따른 해결선택 차이를 알아보려고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방법을 채택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조사의 필요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12개 항목, 농촌원주민이 유발하는 갈등요인 10개 항목(<표 4> 참조), 귀농·귀촌인이 발생하는 갈등요인 13개 항목(<표 4> 참조), 갈등 해결전략 5개 항목(<표 5> 참조)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평가척도는 리커트식 5점 등간척도로 구성했다.

3.2.2 연구대상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유발 요인별로 대응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남 6개 시 지역(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창원시)과 6개 군 지역(고성군,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천군)을 대상으로 원주민 173명, 귀농·귀촌인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는 남자 192명, 여자 116명으로 구성되었고, 대부분은 기혼이다(85.7%).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34.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60대 이상, 40대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은 40.6%이며, 다음으로 고졸이 26.6%수준으로 구성되었다. 거주가족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46.1%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자녀, 혼자의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시 지역 거주민은 43.5%, 군 지역 거주민이 56.5%로 구성되었다(<표 6> 참조).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자	192	62.3	연령	20대	27	8.8
	여자	116	37.7		30대	30	9.7
결혼여부	미혼	44	14.3		40대	57	18.5
	기혼	264	85.7		50대	107	34.7
가족유형	혼자	38	12.3		60대이상	87	28.2
	부부	142	46.1	중졸이하	34	11.0	
	부부+조부모	24	7.8	고졸	82	26.6	
	부부+자녀	82	26.6	전문대졸	49	15.9	
	부부+조부모+자녀	22	7.1	대졸	125	40.6	
	거주지역	시지역	134	43.5	대학원	18	5.8
	군지역	174	56.5	전체	308	100.0	

<표 7>과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농업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원주민이 173명(56.2%), 귀농·귀촌인은 135명(43.8%)이며, 재배작물은 과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채소(23.4%), 식량작물(18.8%), 축산(4.5%), 기타(28.6%, 산양삼, 인삼, 도라지) 등의 순이었다.

농촌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인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37.7%), 다음으로 5년-10년(19.2%), 3년 미만(17.9%), 3년-5년(13.0%), 10년-20년(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차 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은 40명(13.3%)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6차 산업 유형은 1차만 운영하는 경우가 과반 수 이상(165명, 53.6%)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차만 하는 경우는 51명(16.6%), 1차와 3차는 동시에 하는 경우는 33명(10.7%)으로 순이었다. 현재 조사자들은 비교적 1차 산업에만 집중하는 대상자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운영법인형태는 기타(135명, 43.8%)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업자(80명, 26.0%), 영농조합법인(30명, 9.7%), 농업회사법인(28명, 9.1%), 예비창업자(22명, 7.1%), 기타로 농업에 종사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형태가 아닌 비사업자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순이었다.

<표 7> 연구대상자의 농업관련 변인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유형구분	원주민	173	56.2	6차산업 유형	1차	165	53.6
	귀농귀촌인	135	43.8		1차+2차	17	5.5
재배작물	식량작물	58	18.8		1차+2차+3차	17	5.5
	시설채소	72	23.4		1차+3차	33	10.7
	과수	76	24.7		2차	21	6.8
	축산	14	4.5		2차+3차	4	1.3
	기타	88	28.6	3차	51	16.6	
농촌거주기간	3년미만	55	17.9	농업회사법인	28	9.1	
	3년-5년	40	13.0	영농조합법인	30	9.7	
	5년-10년	59	19.2	개인사업자	80	26.0	
	10-20년	38	12.3	협동조합	13	4.2	
	20년이상	116	37.7	예비창업자	22	7.1	
6차산업 인증	있다	40	13.0	기타	135	43.8	
	없다	268	87.0	전체	308	100.0	

3.2.3 자료처리방법

모든 분석은 SPSS 2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원인별 갈등수준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인식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각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원인별 5가지 갈등해결전략별 행동수준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인식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각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원인 간 행동수준의 차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이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행동수준의 차이를 포함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IV. 연구 결과

4.1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발생 원인별 갈등수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발생 원인별 갈등수준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원주민 갈등유발원인은 평균 2.51로 갈등수준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갈등원인 중에서는 '5)농촌과 다른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주민'이 평균 2.75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은 평균 2.90으로 원주민 갈등유발원인보다 갈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내용 중에서는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가 평균 3.31로 가장 강한 갈등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8> 갈등발생 원인별 갈등수준

갈등발생원인		평균	표준편차
원주민 갈등 유발 요인	1)원주민의 텃세	2.46	1.09
	2)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2.44	1.02
	3)회의 방법을 잘 모르는 원주민	2.62	1.10
	4)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 내려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태도	2.58	1.03
	5)농촌과 다른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	2.75	1.04
	6)귀농·귀촌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태도	2.43	0.99
	7)소통하기를 꺼려하는 태도	2.42	0.97
	8)귀농·귀촌인의 일에 간섭하는 태도	2.57	1.20
	9)약속시간을 잘 어기는 태도	2.36	1.04
	10)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	2.48	1.15
	전체	2.51	0.81
귀농 귀촌인 갈등 유발 요인	11)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	3.07	1.19
	12)농촌문화를 잘 모르는 태도	2.95	0.91
	13)농촌 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태도	2.73	1.09
	14)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2.99	1.01

갈등발생원인		평균	표준편차
귀농 귀촌인 갈등 유발 요인	15)마을의 관습이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3.17	1.11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3.31	1.16
	17)농촌 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2.89	1.08
	18)주거단지 조성으로 농촌 원주민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생활 태도	2.69	1.03
	19)무분별한 개발 태도	2.71	1.02
	20)모든 일을 마을관습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2.72	1.09
	21)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	2.45	1.06
	22)귀농·귀촌인 끼리만 어울리는 태도	2.86	0.98
	23)영농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3.12	1.11
	전체	2.90	0.72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발생 원인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갈등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원주민의 갈등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갈등수준은 모든 원인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인식하는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은 원주민보다 원주민이 갈등유발요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귀농·귀촌인이 갈등을 유발요인을 제공한다는 항목에서는 '11)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와 '12)농촌문화를 잘 모르는 태도' 항목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원주민보다 더 갈등요인이라고 생각한 반면,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와 '23)영농방식에 대한 의견충돌' 항목에서는 원주민이 귀농·귀촌인보다 더 갈등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유발요인에 대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견해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9>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발생 원인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수준 차이

갈등발생원인	원주민		귀농·귀촌인		t-value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원 주 민 갈 등 유 발 요 인	1)원주민의 텃세	2.20	1.03	2.79	1.08	-4.876*** (.000)
	2)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2.30	1.02	2.63	1.01	-2.829** (.005)
	3)회의 방법을 무시하는 태도	2.37	1.02	2.95	1.13	-4.715*** (.000)
	4)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 내려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태도	2.46	0.95	2.73	1.10	-2.251* (.025)
	5)농촌과 다른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	2.64	1.04	2.90	1.02	-2.154* (.032)
	6)귀농·귀촌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태도	2.25	0.98	2.65	0.97	-3.547*** (.000)
	7)소통하기를 꺼려하는 태도	2.25	1.00	2.62	0.90	-3.346** (.001)
	8)귀농·귀촌인의 일에 간섭하는 태도	2.34	1.16	2.87	1.20	-3.940*** (.000)
	9)약속시간을 잘 어기는 태도	2.19	0.94	2.58	1.11	-3.242** (.001)
	10)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	2.21	0.98	2.82	1.27	-4.648*** (.000)
전체	2.32	0.78	2.75	0.79	-4.788*** (.000)	

갈등발생원인		원주민		귀농·귀촌인		t-value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	11)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	2.91	1.20	3.27	1.15	-2.667** (.008)
	12)농촌문화를 잘 모르는 태도	2.86	0.93	3.07	0.89	-2.095* (.037)
	13)농촌 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태도	2.77	1.13	2.69	1.03	.640 (.523)
	14)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3.02	1.00	2.95	1.02	.646 (.519)
	15)마을의 관습이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3.27	1.04	3.04	1.18	1.745 (.082)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3.46	1.11	3.13	1.20	2.449* (.015)
	17)농촌 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2.99	0.99	2.76	1.17	1.794 (.074)
	18)주거단지 조성으로 농촌 원주민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생활 태도	2.77	0.96	2.59	1.10	1.497 (.135)
	19)무분별한 개발 태도	2.73	0.95	2.68	1.11	.398 (.691)
	20)모든 일을 마을관습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2.68	1.08	2.76	1.09	-.63 (.518)
	21)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	2.40	1.04	2.51	1.08	-.923 (.357)
	22)귀농·귀촌인 끼리만 어울리는 태도	2.90	0.94	2.81	1.02	.840 (.401)
	23)영농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3.27	1.01	2.92	1.20	2.803** (.005)
전체	2.92	0.68	2.86	0.77	.762 (.446)	

갈등발생원인	갈등해결전략					F-value (P)
	올디	랜덤	뒷포뎃	다우닝	올씨	
5)농촌과 다른 도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	2.34	2.63	3.18	2.98	3.39	84.147*** (.000)
6)귀농·귀촌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태도	2.19	2.57	3.22	2.91	3.26	78.165*** (.000)
7)소통하기를 꺼려하는 태도	2.31	2.67	3.17	3.03	3.24	63.192*** (.000)
8)귀농·귀촌인의 일에 간섭하는 태도	2.47	2.70	3.08	3.14	3.12	37.767*** (.000)
9)약속시간을 잘 어기는 태도	2.19	2.53	2.98	2.88	3.11	65.100*** (.000)
10)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	2.30	2.41	2.69	2.71	2.76	16.577*** (.000)
전체	2.28	2.59	3.08	2.91	3.20	113.252*** (.000)

반면, 귀농·귀촌인이 갈등유발원인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표 11>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갈등발생원인 대부분 뒷포뎃을 갈등해결전략으로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우닝과 올씨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도 했다. <표 10>의 경우와는 달리 귀농·귀촌인이 일으키는 갈등유발원인에 대한 해결전략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민의 갈등유발원인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반면, 귀농·귀촌인의 갈등유발원인은 그 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귀농·귀촌인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선호 갈등해결 전략

갈등발생원인	갈등해결전략					F-value (P)
	올디	랜덤	뒷포뎃	다우닝	올씨	
11)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	2.99	3.19	3.44	3.45	3.20	13.828*** (.000)
12)농촌문화를 잘 모르는 태도	2.60	2.92	3.38	3.19	3.34	51.137*** (.000)
13)농촌 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태도	2.41	2.75	3.16	3.06	3.16	51.462*** (.000)
14)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2.62	2.92	3.28	3.18	3.21	37.415*** (.000)
15)마을의 관습이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3.02	3.12	3.32	3.46	3.17	10.642*** (.000)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3.04	3.30	3.44	3.55	3.18	18.597*** (.000)
17)농촌 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3.32	3.37	3.31	3.55	2.88	19.153*** (.000)
18)주거단지 조성으로 농촌 원주민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생활 태도	2.67	2.88	3.06	3.13	2.95	14.356*** (.000)
19)무분별한 개발 태도	2.60	2.77	2.95	3.04	2.92	15.056*** (.000)
20)모든 일을 마을 관습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2.57	2.64	2.90	2.90	2.92	14.728*** (.000)
21)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	3.03	3.15	3.16	3.45	2.88	16.372*** (.000)

4.2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갈등원인별 해결 전략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원인별 갈등해결전략 행동수준을 살펴보면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원주민이 갈등유발원인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해결전략 중 올씨, 뒷포뎃, 다우닝, 랜덤, 올디 등의 순으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한다. 모든 원주민 갈등유발원인의 경우에 동일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올씨와 뒷포뎃 전략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원주민이나 귀농·귀촌인 모두 원주민이 원인이 된 갈등요인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원주민 갈등발생원인에 대한 선호 갈등해결전략

갈등발생원인	갈등해결전략					F-value (P)
	올디	랜덤	뒷포뎃	다우닝	올씨	
1)원주민의 텃세	2.23	2.65	3.17	2.87	3.34	74.301*** (.000)
2)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2.22	2.60	3.08	2.84	3.31	76.081*** (.000)
3)회의 방법을 무시하는 태도	2.16	2.51	3.08	2.86	3.28	75.754*** (.000)
4)도시에서 할일 없어 내려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태도	2.33	2.60	3.11	2.86	3.21	62.771*** (.000)

갈등해결전략	올디	랜덤	티포택	다우닝	올씨	F-value (P)
22)귀농·귀촌인 끼리만 어울리는 태도	2.78	3.07	3.28	3.22	3.05	17.410*** (.000)
23)영농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2.81	3.08	3.61	3.37	3.39	42.726*** (.000)
전체	2.81	3.01	3.25	3.27	3.10	34.312*** (.000)

다음은 원주민 갈등유발원인에 대한 갈등해결전략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간의 행동수준의 차이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표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주민의 모든 갈등유발원인은 갈등해결전략과 구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원주민의 갈등유발원인은 ‘9)시간약속을 잘 어기는 태도’, ‘10)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패턴을 따르며, 비교적 원주민의 갈등별 행동수준보다 귀농·귀촌인의 갈등별 행동수준이 다소 높으며, ‘9)시간약속을 잘 어기는 태도’의 경우는 티포택, 다우닝, 올씨전략의 수준이 유사한 반면, ‘10)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은 원주민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지만 귀농·귀촌인은 각 전략들의 행동수준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 13>의 귀농·귀촌인의 갈등유발원인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행동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14)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전략과 구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며, 그 외 갈등유발원인으로 상호작용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갈등유발원인은 전략별 행동수준의 차이는 나타났으며, ‘13)농촌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태도’,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17)농촌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19)무분별한 개발 태도’, ‘20)모든 일을 마을 관습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21)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구분별 효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농촌문화를 잘 모르는 태도’, ‘13)농촌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태도’, ‘22)갈등원인의 경우는 기존의 원주민 갈등유발원인들의 전략변화와 유사한 반면, ‘14)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은 원주민은 기존의 원주민 갈등유발원인들의 전략변화고 유사하지만 귀농·귀촌인은 각 전략의 수준이 유사한 패턴이었고, ‘18)주거단지 조성으로 원주민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생활태도’, ‘19) 무분별한 개발 태도’, ‘20)모든 일을 마을 관습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22)귀농·귀촌인 끼리만 어울리는 태도’은 모든 전략들의 행동수준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유사하였으며, ‘17)농촌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21)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은 원주민의 다우닝전략과 올씨전략 간의 행동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 ‘23)영농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은 올디전략과 랜덤

전략의 행동수준은 매우 낮은 반면, 티포택전략과 다우닝전략의 수준은 유사하고, 다소 올씨전략의 행동수준은 낮아진 패턴이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문제를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도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일치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죄수의 딜레마 컴퓨터 대회의 결과를 통한 분석과, 게임에 사용되었던 대응전략을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갈등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게임우승은 상호협력을 통한 티포택전략으로 나타났다. 티포택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은 상대방을 패배시킴으로써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력을 이끌어 냈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농촌에서의 갈등해결전략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촌원주민은 올씨, 티포택, 다우닝 순으로, 귀농·귀촌인은 다우닝, 티포택, 올씨 순으로 갈등해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 된다. 다양한 농촌갈등의 요인들이 죄수의 딜레마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티포택전략이 상대방보다 결코 더 잘하지 못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성공한다는 사실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결국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해결전략을 달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도 게임이론에서 우수한 상호협력을 통한 티포택 전략이 가장 좋은 해결전략으로 판단되어진다. 상호협력을 하게 되면 이익이 더 많다. 이에 따라 협력을 하지 않던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협력으로 돌아서게 된다. 물론 다양한 농촌갈등을 이해하려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틀에 포함되지 않는 역사, 정치, 이념,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갈등은 어디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귀농·귀촌인 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원주민과의 갈등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금 부터는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파악과 갈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갈등에 따라 관리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따라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적용한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대회에서 우수한 대응전략이 현재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본 연구는 게임이론을 통하여 분석한 대응전략이 농촌갈등문제 해결전략으로서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이론전략이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갈등원인별 해소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도 요구된다.

<표 12> 원주민 갈등유발원인에 대해서 갈등해결전략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행동 차이

갈등발생원인		평균인식					F(p)			
		올디	랜덤	티포뎃	다우닝	올씨	전략	구분	전략구분	
원주민 갈등 유발 원인	1)원주민의 텃세	원주민	2.06	2.37	2.99	2.76	3.29	71.661***(.000)	20.835***(.000)	3.711** (.005)
		귀농귀촌인	2.46	3.00	3.41	3.01	3.40			
	2)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원주민	1.98	2.35	2.87	2.75	3.29	72.408***(.000)	23.958***(.000)	6.108***(.000)
		귀농귀촌인	2.53	2.93	3.36	2.96	3.32			
	3)회의 방법을 무시하는 태도	원주민	1.96	2.26	2.99	2.83	3.27	71.557***(.000)	10.513** (.001)	5.202***(.000)
		귀농귀촌인	2.42	2.82	3.19	2.91	3.30			
	4)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 내려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태도	원주민	2.14	2.43	3.07	2.75	3.14	59.203***(.000)	10.765** (.001)	2.497* (.041)
		귀농귀촌인	2.58	2.81	3.16	3.01	3.30			
	5)농촌과 다른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	원주민	2.24	2.40	2.99	2.84	3.35	82.367***(.000)	16.546***(.000)	3.231* (.012)
		귀농귀촌인	2.46	2.92	3.41	3.17	3.44			
	6)귀농 귀촌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태도	원주민	2.01	2.31	3.08	2.84	3.18	75.137***(.000)	18.099***(.000)	3.179* (.013)
		귀농귀촌인	2.43	2.91	3.40	3.00	3.36			
	7)소통하기를 꺼려하는 태도	원주민	2.08	2.38	3.02	2.95	3.26	59.253***(.000)	20.951***(.000)	8.554***(.000)
		귀농귀촌인	2.62	3.04	3.35	3.13	3.21			
	8)귀농 귀촌인의 일에 간섭하는 태도	원주민	2.21	2.48	2.98	3.07	3.03	34.462***(.000)	20.226***(.000)	4.080** (.003)
		귀농귀촌인	2.81	2.98	3.21	3.23	3.24			
	9)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태도	원주민	2.02	2.34	2.90	2.90	3.10	61.498***(.000)	6.593* (.011)	4.998** (.001)
		귀농귀촌인	2.40	2.79	3.09	2.87	3.13			
	10)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	원주민	1.92	2.18	2.59	2.62	2.80	13.654***(.000)	14.571***(.000)	12.607***(.000)
		귀농귀촌인	2.78	2.70	2.81	2.82	2.72			
전체	원주민	2.06	2.35	2.95	2.83	3.17	107.794***(.000)	24.755***(.000)	7.794***(.000)	
	귀농귀촌인	2.55	2.89	3.24	3.01	3.24				

<표 13>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에 대해서 갈등해결전략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행동 차이

갈등발생원인		평균인식					F(p)			
		올디	랜덤	티포뎃	다우닝	올씨	전략	구분	전략구분	
귀농귀 촌인 갈등 유발 원인	11)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	원주민	3.05	3.13	3.44	3.48	3.16	13.727***(.000)	.006(.940)	1.091(.359)
		귀농귀촌인	2.92	3.25	3.43	3.42	3.27			
	12)농촌문화를 잘 모르는 태도	원주민	2.61	2.86	3.40	3.21	3.36	49.601***(.000)	.012(.914)	.869(.482)
		귀농귀촌인	2.60	3.00	3.34	3.17	3.32			
	13)농촌 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태도	원주민	2.31	2.61	3.12	2.98	3.17	49.107***(.000)	4.475*(.035)	2.170(.070)
		귀농귀촌인	2.54	2.93	3.22	3.16	3.13			
	14)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원주민	2.58	2.82	3.36	3.15	3.24	35.043***(.000)	.010(.922)	4.035**(.003)
		귀농귀촌인	2.67	3.04	3.16	3.21	3.18			
	15)마을의 관습이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원주민	2.98	3.12	3.38	3.54	3.27	9.744***(.000)	1.442(.231)	1.753(.136)
		귀농귀촌인	3.08	3.13	3.24	3.35	3.04			
	16)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원주민	3.14	3.38	3.60	3.75	3.23	17.047***(.000)	12.620***(.000)	2.552*(.038)
		귀농귀촌인	2.92	3.21	3.22	3.29	3.11			
	17)농촌 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원주민	3.31	3.49	3.45	3.66	2.91	18.194***(.000)	4.586*(.033)	1.956(.099)
		귀농귀촌인	3.34	3.21	3.13	3.39	2.85			
	18)주거단지 조성으로 농촌 원주민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생활 태도	원주민	2.62	2.81	3.06	3.10	3.01	13.771***(.000)	.333(.564)	1.450(.215)
		귀농귀촌인	2.73	2.98	3.05	3.16	2.88			
	19)무분별한 개발 태도	원주민	2.51	2.65	2.92	2.96	2.87	14.382***(.000)	5.488*(.020)	.889(.470)
		귀농귀촌인	2.71	2.93	2.99	3.14	2.97			
	20)모든 일을 마을 관습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원주민	2.46	2.50	2.84	2.89	2.86	13.497***(.000)	5.127*(.024)	1.803(.126)
		귀농귀촌인	2.72	2.82	2.97	2.91	3.00			
21)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	원주민	3.03	3.23	3.29	3.61	2.91	15.018***(.000)	4.683*(.031)	2.217(.075)	
	귀농귀촌인	3.04	3.04	2.99	3.25	2.84				
22)귀농 귀촌인 끼리만 어울리는 태도	원주민	2.75	3.09	3.36	3.29	3.01	15.980***(.000)	.304(.582)	2.109(.078)	
	귀농귀촌인	2.83	3.04	3.18	3.12	3.10				
23)영농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원주민	2.79	3.07	3.62	3.42	3.40	41.301***(.000)	.051(.821)	.514(.725)	
	귀농귀촌인	2.84	3.09	3.60	3.30	3.38				
전체	원주민	2.78	2.98	3.30	3.31	3.11	32.254***(.000)	.105(.746)	1.544(.187)	
	귀농귀촌인	2.84	3.05	3.19	3.22	3.08				

REFERENCE

김상균(2012). *중고령 귀농인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성규·박상혁·박정선·설병문·손은일(2016).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 *벤처창업연구*, 11(3), 63-76.

김용근(2011). *마을 공동사업의 이해와 갈등관리*, 도서출판 해남.

김정섭(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방 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4), 533-556.

김철규·이해진·김기호·박민수(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마상진·남기천·최윤지(2016). 역 귀농·귀촌 의향 영향 요인 분석, *농촌사회*, 26(1), 37-63.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윤지·최용욱·남기천(2014).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106.

박공주·윤순덕·강경하(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박기서·정일훈(2012). 귀촌도시민의 선호지역과 결정요인,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0(2), 91-105.

박대식(2016).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 영향요인 분석, *농촌사회*, 26(1), 7-35.

박대식·김경인(2017). 농촌주민이 인식하는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4), 653-667.

박문호·오내원·임지은(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189.

박시현·최용욱(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59.

박은경(2008). *귀농인 이주만족도 조사연구 영월지역 은퇴 후 귀농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연·김태우·박동규(2015). 2015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32.

서규선·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7(1), 137-153.

오수호(2013).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영민·김용근·안민지(2017).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요인과 인식 차이 분석: 충남 서천군 농촌주민 및 귀농·귀촌인 특성을 사례로, *농촌사회*, 27(2), 93-136.

유종해·이덕로(2015).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윤순덕·최정신·마상진·남기천(2017). 귀농·귀촌패널로 본 역귀농·귀촌 실태, *농촌사회*, 27(1), 53-93.

이성일·안민지·김용근(2016). 귀농·귀촌의 경험 여부에 따른 갈등요인과 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 *농촌계획*, 22(2), 77-87.

이지흠·하규수(2017). 귀농 귀촌에서 귀농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가족 지지도를 조절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5), 39-53.

차광주(2010). 현장에서 본 귀농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507-526.

천태운(2001). *갈등관리 전략론*, 선학사.

최윤지·황정임·이상영·안옥선(2012). *귀농순자병법: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갈등이유*.

Arce, D. G.(2010). Economics, Ethics and the Dilemma in the Prisoner's Dilemmas, *The American Economist*, 55(1),

49-57.

Axelrod, R.(2009). *Cooperation The Evolution of Operation*, Seoul: Sys Theme.

Cha, G. J.(2010). Urban-to-rural Migration Activation Plan in the Field, *Agriculture Outlook 2010,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507-526.

Choi, Y. J., Hang, J. I., Lee, S. Y., & Ahn, O. S.(2012). The art of war of Urban-to-rural Migr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hun, T. Y.(2001).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Sunhak Publisher.

Davis, M. D.(1995). *Game Theory*, Seoul: Panther Book.

Oh, S. H.(2013). *A Discussion on the Moving In-settling down Circumstances of the Families Returning to the Countryside for Farming or else and how to Support Them*, Doctoral Thesis of General Graduate School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im, C. G., Lee, H. J., Kim, K. H., & Park, M. S.(2011). *A Study on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Rural and Adult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Rural Societ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search Paper.

Kim, J. S.(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6(4), 533-556.

Kim, Y. K.(2011). *Understanding and Conflict Management in Community Joint Projects*, Haenam Publisher

Kim, S. G., Park, S. H., Park, J. S., Seol, B. M., & Son, E. I.(2016). Development of Index about the Sixth Industrial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63-76.

Kim, S. K.(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 Focused on Case of Gyeongsangbuk Province*, Doctoral Thesis of General Graduate School in Daegu Universit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7). *Reasons for the Conflict Between Indigenous Peoples and Indigenous Peoples*.

Lee, J. H., & Ha, K. S.(2017).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in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With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ac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39-53.

Lee, S. I., Ahn, M. J., & Kim, Y. G.(2016). The Perception Gap about Conflict Factors and Solutions by Experience of Returning to Farm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2(2), 77-87.

Ma, S. J., Nam, K. C., & Choi, Y. J.(2016). Urban-to-Rural Migrants' Intention of Returning to Urban Area and Its Related Variables, *Rural Society*, 26(1), 37-63.

Ma, S. J., Park, D. S., Park, S. H., Choi, Y. J., Choi, Y. U., & Nam, K. C.(2015). The Long-term Follow-up Survey on Settlement Status of Urban-to-rural Migration - the First Year, *KREI Report*, 1-106.

Park, D. S.(2016).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Rural Residents' Attitude toward Urban-to-Rural Migrant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6(1), 7-35.

Park, D. S., & Kim, K. I.(2017). The Socio-economic Impacts

- of Urban-to-rural Migration on the Rural Community: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Rural Resi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8(4), 653-667.
- Park, E. G.(2008).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Immigrants' Migration: Focusing on the Earners after Retirement in the Yeongwol District*, Master Thesis of Industrial Graduate School in University of Seoul.
- Park, K. S., & Chung, L. H.(2012). Preferring Areas and Determinants of Urban-to-Rural Migr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Research Society*, 10(2), 91-105
- Park, J. Y., Kim, T. W., & Park, D. K.(2015). Trends and Prospects of Agriculture and Farm House Economy in 2015,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port*, 3-32
- Park, K. J., Yoon, S. D., & Kang, K. H.(2006). Factors Effecting on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Returners to the Farm After Retir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2(4), 63-76.
- Park, M. H., Oh, I. W., & Lim, J. E.(2012). Supporting Strategy for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Community, *KERI Report*, 1-189.
- Park, S. H., & Choi, Y. K.(2014). Factors for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Areas and its Impacts on Korean Rural Society and Economy, *KERI Report*, 1-159.
- Pondy, L. R.(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on Science Quarterly*, 12, 296-320.
- Suh, G. S. & Byun, J. M.(2000). Development of Long and Short-run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7(1), 137-153.
- Yoo, J. H. & Lee, D. R.(2015).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akyoungsa Publisher
- Yoo, Y. M., Kim, Y. G., & An, M. J.(2017). Analysis of Conflict Factors and the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Conflict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The Case of Rural Residents of Seocheon-gun, Chuncheonnam-do,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7(2), 93-136.
- Yoon, S. D., Choi, J. S., Ma, S. J., & Nam, K. C.(2017). The Proportion and Characteristics of Outmigrants among Urban-Rural Migrants in Ko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7(1), 53-93.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Kim, Tae-kyun**
Park, Sang-hyeok***

Abstract

In recent years, as the population of ear and aged villages has increased,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has been widespread. For successful rural community, such conflict resolu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However, if we look at previous studie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studies that focus on people who are not rural residents or urban-to-rural migra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This study derives the factors of conflict based on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To see the difference, five strategies were used from the response strategies that were used in the 'Computer Prisoner's Dilemma Contest' held by Axelrod (2009). I would like to know what kind of strategies of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All analyzes were done using SPSS 22.0 for Windows, and the results of each conflict resolu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digenous conflicts were low All. Among the causes of conflict, the highest level of conflict was caused by the 'rural residents who did not understand urban culture'. The strategy is the most used, followed by tit for tat Strategy, and all-c strategy, in that order. However, It is not uncommon for employers to use a work-type strategy,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trategy changes depending on the cause.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results, Th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re almost similar strategies. It can be seen that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s used differently according to person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conflicts in the rural areas.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hoice of solution strategies based on game theory through reviewing prior research and eliciting actual conflict factors in the field. Successful rural settlement can be achieved not through stakeholder competition but through mutual cooperation by gaining cooperation to the other side. Mutual cooperation is more profitable than betrayal in various conflict situations. The secret to maintaining and communicating smoothly is not to use the other person to fill his or her selfish interests, but to reject it for profit, but to draw cooperation from the other party.

Keywords: Conflict, Rural Resident, Urban-to-rural Migrant, Prisoner's Dilemma, Game Theory, and Tit for Tac

* We wrote this paper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 First Author, Master,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754bigkyun@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park@gntech.ac.kr